

# 교원 87% “사기 떨어졌다”

우리나라 교원 87.4%는 사기저하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원들은 교권 저하와 학생 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제38회 스승의 날 맞아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설문조사는 4월 29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했으며 유·초·중·고 및 대학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했다.

최근 1,2년 간 교원 사기 변화에 대해 87.4%는 ‘떨어졌다’고 답했다. 지난 2009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55.3%였다. 10년 새 32%포인트 증가했다.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응답자의 65.6%는 교권이 잘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교권 보호가 잘 되고 있다는 대답은 10.4%에 그쳤다.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은 교육의

## 교총, 5493명 대상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 공개

65.6%는 교권 보호 안 돼…교육의 질 저하 이어져

## 교직생활에 학부모 민원 및 학생지도 어려움 호소

질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0.8%는 사기 저하와 교권 하락으로 학생 생활지도를 기피하고 관심이 떨어지게 된다고 답했다.

교원들이 꿈은 교직생활의 어려운 점(복수응답)으로는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55.5%에 달했다. 부적응 학생 생활지도는 48.8%, 교육계 불신 36.4%, 교육과 무관한 업무 32.0% 틈다운 방식의 잣은 정책 변경 14.6% 순이었다.

교원 명예퇴직이 증가하는 이유

고 생각하고 있었다.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서는 59.5% 가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의 의견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무상 교육 정책에 대해 49.0%는 우선 투자 분야가 아니라 고 생각했다. 70.9%는 정규 교원 확충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교육정책을 시급히 투자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교원들은 “교원의 사기와 교권이 저하를 넘어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이 학생 지도와 학교 업무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가 명퇴의 주원인으로 드러난 만큼 실질적 교권 확립과 교원들의 생활지도권 강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스

## 광주전남연구원 연구 실적 저조·방만 지적 시의회 송형일 의원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 실적이 저조하고 조직이 빙빙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더불어 민주당·서구3)은 13일 열린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광주전남연구원의 경영평가에 따르면 1인당 과제 수행 건수가 평균 3.5건에 불과하다”며 “정작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연구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2015년 9월 연구원 통합 후 양 시·도가 2년씩 번갈아 지도감독을 하면서 책임감이 약해지고 통제는 느슨해 졌다는 평가가 있다”며 “협업시스템 강화와 시민과의 소통도 풀어야 할 과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연구원은 5개 분야별 연구실 외에 남도학연구센터, 아시아연구센터, 지역정보센터, 광주경제교육센터 등 4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통합 전 조직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으로 필요하지 않아”며 “연구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연구 실적 저조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올해 광주전남연구원의 수행과제를 낮추어 제시한 것은 소극적인 판단이다”며 “연구 성과물에 대한 질적 수준 향상과 활용도 방안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세종대왕님 고맙습니다 세종대왕 탄신일을 이틀 앞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어린이들이 ‘고맙습니다’ 글자가 적힌 긴이 벽에 꽃을 바치고 있다.

## 광주세계수영대회 수송대책 비상…KTX 증편·차량확보 문제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개막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수송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조직위원회에 비성이 걸렸다.

13일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에 따르면 외국 선수들의 광주 방문을 위해서는 인천공항과 광주를 오가는 교통편 확충이 대회의 필수 요건이다.

지난 2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를 열고 인천공항과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KTX를 기준 2편에서 7편으로 증파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KTX 증편이 공항철도 운행계획과 맞물리면

서 이직까지 구체적인 열차 증편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KTX는 증편하려면 하루 100회 운행하는 공항철도의 운행 횟수를 줄여야 해 이 부분에 대한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단 입국이 7월5일부터 시작돼 신호체계 정비 등의 일정을 감안 하면 적어도 13일 전까지는 KTX 증편 일정이 확정돼야 하는 것으로 조작위는 판단하고 있다.

선수단 수송에 필요한 버스, 승용차, 승합차 확보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작위는 기아자동차에 버스 110

대와 승용차 250대, 승합차 60대 지원을 요구했으나 기아차가 지원 규모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다.

광주시는 기아차의 차량 지원이 여의치 않을 경우 자체 예산으로 차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 기아차에 배른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작위 관계자는 “대회 개막이 코 앞으로 다가왔는 데도 아직까지 수송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고민이다”며 “개막 전까지 최대한 준비해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 美 성폭행범, 23년간 도주해오다 자수

여러 건의 성폭행 사건으로 미국 경찰의 수배를 받아오던 한 용의자가 23년만에 자수했다고 CNN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웨인 아서 실즈비(62)는 지난 1995년 9월부터 1996년 4월까지 8세에서 10세 사이의 소녀들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FBI에 따르면 실즈비는 피해자 가정에서 베이비시팅(아이돌봄)을 해오거나 행사에 데려가는 일을 하면서 피해 아동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즈비는 지난 10일 미 오리건주 경찰에 자진출두해 자수했다. 그가 웨 23년간의 도주를 끝내고 자수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 1998년 7월 실즈비에 대해 1급 유사성행위, 1급 성학대, 1급 성폭행, 미성년자 학대 등의 혐의로 제포영장에 발부했었다.

FBI는 “실즈비는 최근까지 네브라스카에서 살았으며 그동안 스프링필드 미주리, 샌프란시스코, 콜로라도, 애리조나, 위싱턴주 북부 지역에서도 거주했다”면서 “추가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 사우디 유조선 2척, 걸프 UAE 근해서 피격

이란 핵심의 파기와 위반 문제로 인해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급속히 고조하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유조선 2척이 걸프 지역 이집트마리트(UAE) 연안 해역에서 피격을 당했다고 사우디 에너지 장관이 13일 밝혔다.

사우디 국영 통신 SPA에 따르면 칼리드 알팔리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자국 유조선 두 척이 UAE 근해에서 공격을 받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이들 사우디 유조선 한 척은 미국으로 수출할 사우디산 원유를 적재하기 위해 귀환하기가 UAE 푸자이라 해안 가까이 수역에서 의도적인 공격을 당했다고 알팔리 에너지 장관은 설명했다.

## 미 알래스카 교도소 2곳서 잇달아 3명 사망

미국 알래스카주 서부지역의 교도소 2곳에서 지난 2주 동안 3명의 수감자가 잊달라 사망했다.

12일(현지시간) 지역 언론인 앵커리지 데일리뉴스에 따르면 알래스카 서부 이카이아 카도소에서 수감자 로버트 닉(54)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닉은 최근 악물 중독 때문에 교도소내 보호 구금 시설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도소는 알래스카 서쪽 커스코원 강변에 있는 인구 600명의 작은 마을에 위치해있다.

알래스카 주 경찰은 닉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교도관들에 의해 발견되었을 때 사망한 지 얼마나 지났는지, 사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의 시신은 앵커리지에 있는 주 검시관 사무실로 보내졌다고 당국은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 4월28일에는 이곳에서 30km 떨어진 나파기와 지역 교도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의 수감자가 사망했다. 교도관 1명은 이를 구하려다 중상을 입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은 지난 30년간 이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것으로 화재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다.

## 알바니아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50명 체포

알바니아의 수도 티라나에서 12일(현지시간) 일어난 반정부 시위동안 체포된 사람 50명에 이르렀다고 경찰이 발표했다.

국립경찰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반항, 근무중인 공무원에 대한 폭행, 공공질서 파괴, 경찰 명령 방해, 불법 시위에 대한 처벌을 체포되었다.

“특히 반정부 시위대는 종리실과 국회의사당 본관, 내무부를 비롯한 공공건물과 민간 시설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성명은 주장했다.

경찰은 이 날 시위로 16명의 경찰관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뉴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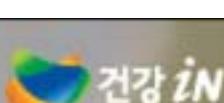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미혁이는요…  
자폐치료증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일찍 그래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 봄에  
안녕이라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증자체조기발전  
자폐치료 증인민혁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령에는 검진기준이 초월화되거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h-well

| 고객센터 1577-1000 |